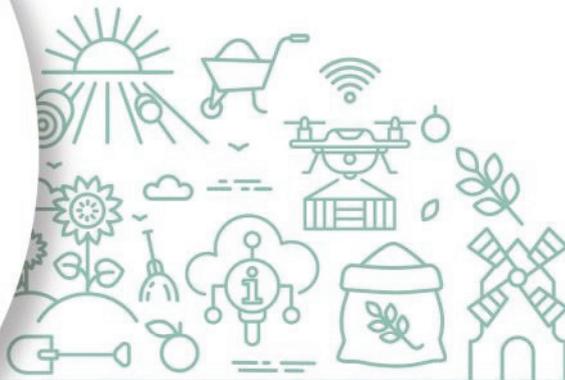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김태후 | 연구위원
taehoo82@krei.re.kr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선결과제

KEY MESSAGE

✓ 산지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 품질 등급제 확립 필요

SUMMARY

-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품질 등급 중심의 수요 집중과 산지 정보 불투명성이 결합된 구조적 가격 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지 생산·저장 정보와 객관적 품질 기준 미비는 수급관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지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데이터 기반 품질 등급제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01 농산물 수급관리 현황과 전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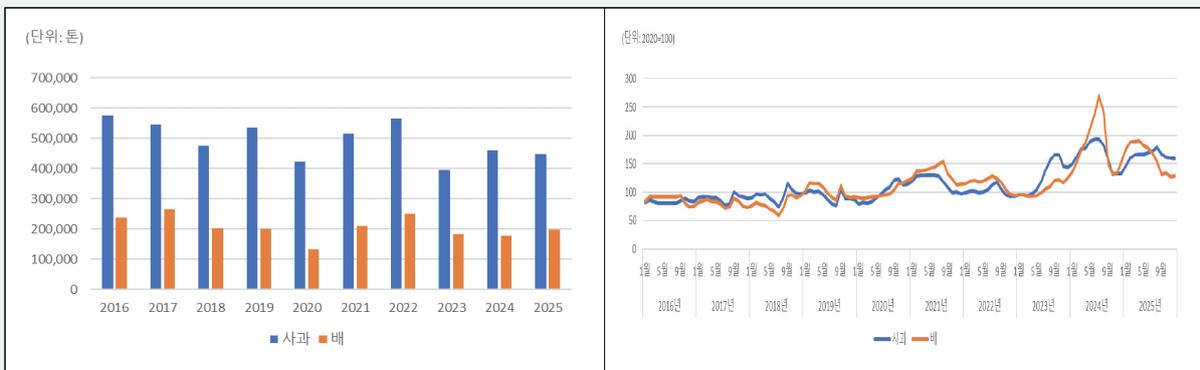


기후위기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 전환

I 기후 위기로 인한 공급 변동성 및 가격 불안정 확대

- 최근 지속된 기상이변과 폭염은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 부족과 '대과' 등 특정 규격 상품에 대한 수요 집중이 결합되어 가격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2024년부터 관찰된 사과·배 가격 급등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제례용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고품질 '대과'의 생산량이 봄동상해·폭염 피해로 인해 급감하면서, 특정 등급의 가격 상승이 전체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나타남.

〈그림 1〉 사과·배 생산량(좌), 소비자가격지수(우)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https://kosis.kr>), 검색일: 2026. 2. 20.

I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 전환

- 한편,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2023년 기준 49.2% 수준으로 높고, 도매시장 경매제도가 거래 당일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에 정부는 2025년 9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¹⁾을 발표하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다단계·경매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와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병행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유통구조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산지 단계의 정보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확한 생산·공급량 파악과 객관적 품질 등급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1) 관계부처합동(202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25-6-2(공개).

02 산지 정보 불투명성



산지 정보의 불완전성과 수급관리 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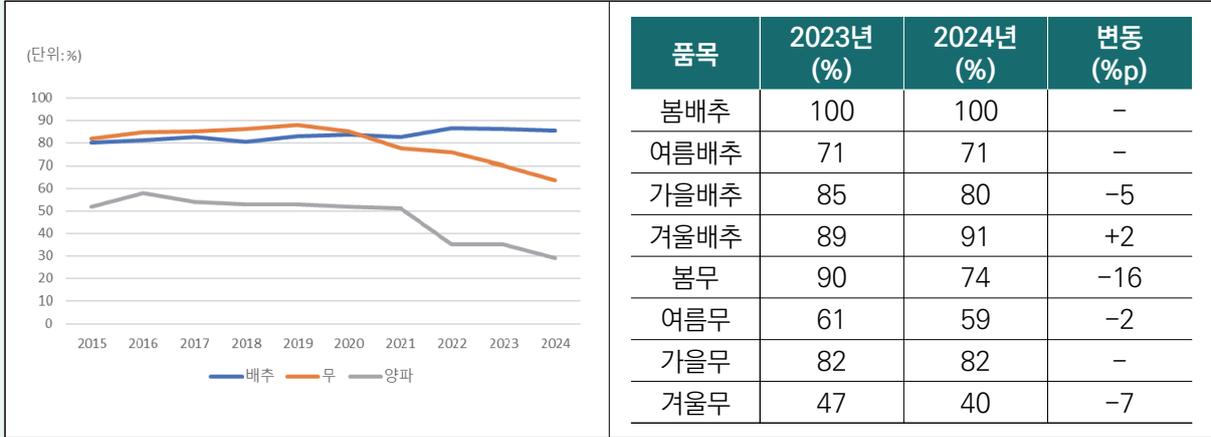
I 산지 생산 및 저장 물량 파악 구조적 한계

- 현재 도매시장 단계는 반입량과 가격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으나, 가격 형성 출발점인 산지 단계의 생산·저장·출하 정보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음. 산지에서의 생산량과 저장 물량, 출하 계획이 집계·공유되지 못하면서 수급관리의 정보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저장 정보의 불확실성은 산지 수급관리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농가, 산지유통인, 민간 저장업체 등이 각각 보유한 물량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 산지에 남아 있는 물량 규모나 향후 출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정부 역시 가격 급등 이후 비축 방출이나 수매, 출하 조절 등 사후 대응 중심의 수급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산지 단계의 출하 결정은 개별 농가와 산지 조직에 의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재배나 출하 계획 기반 거래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이러한 거래 구조는 도매시장 반입량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출하 집중 또는 지연 현상을 유발하여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I 포전거래와 정보 사각지대

- 산지 정보 불투명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산지유통인과 개별농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포전거래(밭떼기 거래)임. 포전거래는 산지에서 주요 노지채소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방식과 계약 내용이 표준화·제도화되지 않은 채 관행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림 2〉 주요 노지채소 포전거래 비중 추이



주: 배추는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의 산술 평균이며, 무는 봄무, 고랭지무, 가을무, 월동무의 산술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각 연도), 유통실태 종합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

- 산지 거래 규모, 계약 시기, 저장·출하 시기 등 농산물 수급에 관한 핵심 정보가 시장 밖에 존재하여 정책당국과 유통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지의 높은 포전거래 비중은 농협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약재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이 산지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음.

03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제 구조적 한계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제의 현장 적용 한계²⁾

I 표준규격 등급제의 형식화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시하고, 과실류·채소류 등 79개 품목³⁾에 대해 특·상·보통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등급 기준이 외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표준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등급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 물량을 특 등급으로 표시하여 출하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

I 산지 등급과 도매시장 등급의 불일치

- 산지 출하자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등급과 도매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등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 도매시장에서는 경락가격 기준으로 상위 5%를 특, 6~30%를 상, 31~70%를 중, 이하를 하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산지의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따라 등급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임.
- 결과적으로 산지에서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등급이 표시되고,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등급이 재분류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이중 구조는 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의 실제 품질 수준과 품질별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I 수급관리와 유통 혁신의 제약 요인

- 농산물 수급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에 유입되는 총물량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에 적합한 물량, 신선 유통이 가능한 물량, 저장에 적합한 물량 등 품질별 물량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등급이 가격에 종속되는 구조에서는 품질 기준에 기반한 수급 분석이 어렵고, 비축·출하 조절·가공 전환 등 정책 수단 선택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2) 최수훈·최연주·한상근·김민수(2021), “농산물 도매시장 등급별 기준 가격 제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3): 1075-1084.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40332&utm_source=chatgpt.com), 농산물 등급규격, 검색일: 2026. 2. 20.

- 예를 들어 저장 정책의 경우 가격이 낮은 물량이 아니라 저장에 적합한 품질의 물량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등급이 가격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저장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저장 효율성 역시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향후 비축 물량 방출 시 품질 불일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계약재배, 예약거래 등 사전 계약 기반 거래에서는 거래 이전 단계에서 품질과 등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등급 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 설정이 어렵고 거래 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와 상품 정보 기반 거래 방식의 확산에도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04 향후 과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I 산지 유통 주체의 제도권 편입과 역할 재정립

- 산지 단계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전거래를 포함한 기존 산지 거래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와 거래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산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산지 유통인의 역할을 제한하기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보다 투명한 유통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산지 유통 주체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 영역의 현장 데이터를 공공 관리 체계로 유입시키는 기초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짐.

I 선도거래소를 통한 포전매매의 제도권 편입과 정보화

-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이전 단계의 거래인 포전매매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장치가 필요함. 포전거래는 수확 전 물량과 시기가 결정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수급 안정에 기여할 잠재력이 큼.
- 선도거래소를 활용한 예약형·선도형 거래는 관행적 포전거래를 표준화된 정보로 전환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거래 물량, 계약 시기, 가격 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량과 출하 물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선도거래소를 통한 포전매매 양성화는 도입이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와 유통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표준계약서 적용, 거래 정보 신고, 위험 관리 장치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 AI 선별 기술을 통한 데이터 기반 품질 등급제 확립

- 현행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따른 등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거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AI 기반 자동 선별 기술의 도입이 핵심 수단으로 주목됨. 스마트 APC에 도입되는 AI 선별 시스템은 농산물의 크기·형태·색상뿐만 아니라 당도, 내부 결함 여부 등을 정량적 데이터로 측정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품질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경북 성주 월항농협 APC⁴⁾의 경우, AI 선별 시스템 도입 후 참외의 26개 결점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판별하고 처리 물량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줌.
-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APC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AI 선별 기술을 통한 품질 데이터 생성 기반을 강화하고, 해당 데이터가 도매시장·온라인 거래·소비 단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 산지와 영세 농가의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4) 한국농어민신문(2025. 12. 30.), “[스마트 혁신기술, 농업을 바꾼다] 시가 바꾼 참외 선별…인력난 해소·26가지 결점 바로 캐치”.

감 수 한정훈 부연구위원 061-820-2038 madam4007@krei.re.kr
내용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48호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선결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3.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